

# 농식품펀드, 505억 신규 조성

## 농식품부, 내달 30일까지 운용사 모집공고 실시... 농식품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올해 125억원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와 10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화펀드가 신규 조성된다. 6차산업펀드로 100억원, 농식품 일반펀드로 180억원이 추가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정부 출연 4592억원, 민간 3613억원 등 총 8205억원을 조성해 260개 경영체에 4740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개별 경영체의 성장과 함께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모태펀드 피투자 경영체 표본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8.3%, 10.5%씩 증가했다.

올해는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등 모두 505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신규 조성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와 지역특성화펀드(10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펀드 100억원)와 농식품 일반펀드(180억)도 추가로 조성한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하도록 설계해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전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해 해당 지자체의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도 신규로 조성된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와 경기도가 공동 출자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집중 지원한다.

펀드 출자는 모태펀드 40%, 지자체 30%, 민간 30% 비율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농식품분야 투자 촉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농식품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은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 80% 이상이었다.

유한책임형 회사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펀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과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벤처펀드는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 출자를 우선 부담하는 '우선손

실총당제'를 도입했다. 스마트팜 창업 투자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높은 위험에도 적극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도다.

운용사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도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 등에 따라 차등화했다. 즉 농식품 일반펀드는 5%, 일반 특수목적펀드는 2%, 농식품벤처펀드는 0%로 조정했다.

올해 5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모집공고는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운용사 선정 결과는 4월말에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9년차를 맞아 농식품 펀드 1호 청산이 기대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청년창업 등 시장실패 영역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농식품 모태펀드가 농업의 혁신성장과 창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전주상공회의소 개정세법설명회 22일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상의 7층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관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국제기법·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기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전주상의 홈페이지나 회원사업팀(☎ 280-1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삼)은 19일 본청 지청장실에서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도·전주 상의와 인적자원위 약정 체결

### 일자리 안정자금 확산 상호협력 선언문 채택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삼)은 19일 본청 지청장실에서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광역단위로 전국에 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발굴과 실행을 지원하는 지역고용의 중추적 협의체다. 이번 약정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국비 6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전라북도 1억6천만원을 매칭해서 전주상공회의소를 수행기관으로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인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도교 여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윈스타가 대신 체험해서 알려줬으면 하는 점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뉴시스

대응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행기관이자 공동 위원장인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적절한 지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청 정영삼 지청장은 '올해 전라북도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 18개 사업, 43억원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본부 최종 심사에 올랐다. 이 중 고용위기 대응은 6개 사업 12억원 규모다. 일자리 사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수요는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약정과는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영세사업주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산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중앙·지방·경제단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조기정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 가스공사, 사상 첫 여성 본부장 배출

### 최양미 설비기술처장, 기술사업본부장 선임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사상 처음 여성 본부장을 선임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1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양미(54) 설비기술처장이 기술사업본부장으로 선임됐다. 1989년 가스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여성 본부장이 나왔다.

정승일 사장은 취임 이후 강력한 혁신 의지를 천명하며 젊은 부서장을 대거 발탁해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발탁 인사의 핵심이자 조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본부의 경우 보직자 평균 연령이 기존 대비 3.1세 젊어졌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사에서 확일

적 보직 부여 관행을 깨고 일과 능력 중심에 방점을 뒀다.

임금피크 예정 보직자들은 엄격한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직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명의 1·2급 임금피크 예정자가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고, 젊은 2급(부장) 간부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50대 젊은 사장이 취임한 만큼 기존보다 7기수 이상 낮은 12~14기 인재를 주요 처·실장급 직위에 대거 등용했다"며 "젊은 기수 발탁과 직위·직급이 분리된 파격 인사가 이뤄졌지만, 철저한 인사 검증과 경영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인사를 실현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능력 중심의 간부급 인사를 신호탄으로 이달 말까지 직원 전보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제보 288-9700

## 수출전용 브랜드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 출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수출전용 브랜드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월부터 뉴질랜드와 두바이에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알코올 8%)'을 출시했다.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은 '하이트 스트롱(6.4%)'을 리뉴얼 한 제품이다.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수출전용 브랜드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몽골에 하이트 스트롱을 처음으로 수출한 후 이라크

이라크에미리트 등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하이트 스트롱을 판매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을 출시했으며 몽골에서는 리뉴얼 출시와 함께 브랜드 홍보를 위해 2월 중 TV광고를 선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중동의 맥주 시장 규모는 10억 리터였으나 2021년에는 12억 1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트롱 맥주 시장 역시 3000만 1 규모에서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 이스타항공, 윈스타와 함께 하는 고객참여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이스타가 대신 헤든 탑니다' 라는 고객참여 이벤트를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홍보서포터즈 '윈스타'의 도쿄 노선체험활동을 통해 고객들을 대신해 현지 여행 시 궁금했던 점을 직접 체험하는 미션을 접수 받는다.

도교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SNS상에서 도쿄 여행 관련 질문을 댓글로 받고 실제

서포터즈들이 도쿄 여행 시 미션을 통해 체험기를 전달하게 된다.

고객들은 각종 먹거리와 가볼 곳 등을 사전에 간접 체험해보며 원하는 방향으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스타항공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도쿄 여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윈스타가 대신 체험해서 알려줬으면 하는 점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뉴시스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송포리485-2)

###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 협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전(전)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